

알려 드립니다.

1. 가족들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추석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2.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주보에 간지로 넣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3. 추석 연휴기간 중 교회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예배 : 24(월) - 26(수), 오전 5:20, 찬양대 연습실
수요저녁예배 : 26(수), 오후 7:30, 본당
- ※ 26일 수요저녁예배는 차량운행을 포함,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족들과 수요저녁예배를 통해 영적회복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 시편 23편 |

1.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추석 2018년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_ 데살로니가전서 5:13

추석 명절 가정예배는

-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 음식은 미리 준비하였다가 예배 이후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잘 이해시켜서 함께 참여하도록 합니다.



한발제일교회

Tel. 042-541-3990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같이

● 선포 믿음으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다같이

●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말은이

● 성경봉독 시편 23편 말은이

● 설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말은이

●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다같이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안에 기쁨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 기도나눔 서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제목을 나누고 다같이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 합니다 다같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오늘 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만, 그것으로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삶에 어떤 변수가 위험 혹은 기회로 나타날 지 전혀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느라 결국 그저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에 급급할 뿐, 꿈과 비전을 논할 기회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라도, 삶은 우리의 최선으로 지켜지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삶을 이끌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살려 주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삶의 궁극적 목적의 길로,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이 되실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생길이 접어든다 해도, 어떤 어려움이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장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삶을 안위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길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결국 잔치상을 차려 주십니다.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천명하시며 가득 채운 잔을 들어 잔치를 벌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인생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은 빈궁과 가난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예측되지 않는 미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